

미국 화학경기 호전 “부품 기대”

ISM, 2004년 제조업 수익 5.8% 증가 76% ... 가동률 8년만에 최고

미국은 2004년 전반적인 경기강세와 함께 제조업 경기도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.

Institute of Supply Management(ISM)가 최근 제조기업 구매/공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미국 제조업 구매/공급 담당자들은 2004년에는 2003년에 비해 수익이 개선되고 자본투자 확대와 함께 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또한 대부분이 2004년 상반기 강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.

ISM의 조사 응답자 중 76%가 2004년 수익이 전년대비 약 5.8%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해 2003년 조사된 수익 증가율 전망치인 2.8%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제조 분야의 평균 가동률은 2003년 5월 79%에서 최근 평균 80.1%로 상승해 200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80%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. 그러나 이는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0년 5월 수준에 비해 7.3%p 낮은 것이다.

2003년에는 제조업 생산능력이 1.2%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응답자 중 41%는 10.4% 증가했고 16%는 오히려 17.8% 감소했으며 43%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. 당초 2002년 12월 제조업 생산능력은 3.7%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. 그러나 응답자 대부분은 2004년 생산능력이 3.8%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미국 제조업 경기분석 및 2004년 전망

현재 가동률 80.1%
2003년 자본투자규모 2.7% 증가
2004년 자본투자규모 3.2% 증가 전망
2004년 생산능력 3.8% 증가 전망
2003년 지불가격 0.7% 상승
전반적인 2004년 가격 2003년 대비 1.3% 상승
2004년 노동/연금코스트 2.7% 상승 전망
2004년 고용률 0.3% 상승 전망
미국달러 보합세 유지 전망
2004년 수출 증가 전망
2004년 수입 증가 전망
2002년 이후 공휴일 염가판매 증가 전망
2003년 수익 2.8% 증가
2004년 수익 5.8% 증가 전망
인플레이션/에너지코스트/Health Care 코스트/통화변동/테러/전쟁 등 변수작용 전망
전반적으로 2002년 12월 비해 낙관적/호전 전망

2003년 생산능력이 늘어난 원인으로 <기존 인력의 근무시간 연장>이 가장 높은 비중이 차지했으며 <플랜트 또는 장비 추가>, <정규·임시·계약직 인력확대>, <고급장비로 기존장비 대체> 및 <기존인력을 이용한 교대제> 등이 2-5위로 조사됐다.

구매/공급 담당자들은 2004년 제조업 자본투자 규모가 약 3.2% 증가해 2003년 2.7% 증가에 비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이 중 31%는 2003년 자본투자가 약 30.5% 증가한 반면, 26%는 평균 23.9%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전체의 43%는 2003년 투자규모가 2002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제지, 인쇄 및 출판, 식품,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을 비롯해 스포츠용품, 보석, 악기, 포토그래픽 장비 등의 분야에서 자본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.

또 전체 응답자의 36%가 2004년에는 자본투자를 약 26.7% 확대할 계획이라고 대답한 반면, 20%는 31.9% 축소하고 나머지 44%는 2003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제조기업 구매/공급 담당자들은 지불가격(Price Paid)이 2003년 상승세를 이어 2004년에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2003년 제조기업의 지불가격은 전년대비 약 0.7%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, 응답자 중 43%가 <평균 6.1% 상승>을 선택한 반면 37%는 <5.2% 하락했다>고 보았으며 나머지 20%는 <변동사항이 없다>고 대답했다.

응답자의 47%는 2004년 1/4분기에 지불가격이 약 4.3% 상승하고 25%는 4.1%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

반면, 나머지 28%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.

전반적으로 2004년 1-4월 제조업 지불가격은 약 1% 상승하는 반면, 화학산업을 포함해 식물, 유리·석재연마, 공업·상업장비 및 컴퓨터, 주금속, 기계 및 포토그래픽 장비, 목재 및 관련제품, 스포츠용품, 보석, 악기 등 8개 분야는 평균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구매/공급 담당자들은 2004년 전체 제조업 지불가격이 <평균 약 1.3% 상승할 것>이라고 대답했는데, 이 중 56%는 4.7%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26%는 <5% 하락할 것>이라고 전망했으며 나머지 18%는 <변화없음>이라고 응답했다.

또 2004년 평균 상승 전망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화학산업은 제외된 반면 식물, 유리·석재연마, 의류, 공업·상업장비 및 컴퓨터, 주금속, 목재, 조립제품, 스포츠용품, 보석, 악기 등의 분야는 여전히 포함됐다.

한편, 조사 응답자들은 2004년 재고 대 판매비율(Inventory-to-Sales Ratio)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답한 가운데, 2004년 제조업 고용율은 약 0.3% 상승하고 노동 및 연금코스트는 2.7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3/02>